

충성대신문

제 210호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3각3지

- 3각은 천지인(天.地.人)을 나타내며
홍익인간을 상징, 3지로서 3사관학교 의미
- 백색은 옳은 것을 지향하는 청백한 품성 표시
- V지는 승리, 각은 날카로움 표시
- 전체 형상은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로서
육군의 초석임을 표시

육군마크/별표

- 육군마크는 육군정예간부 양성의 요람임을 의미
- 별표는군인 최고의 상징인 명예와 권위 의미

학교 모표

평화를 추구하는 드높은 이상을 견지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청백한 품성과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며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육군의 초석이 되는 명예롭고 권위 있는 정예간부를 양성하는 육군3사관학교!

학교 모표 조형물은 故우성제 생도(61기) 유가족의 기부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3사인 故우성제 생도를 기억하겠습니다.

2025 동계군사훈련 화이팅!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박성훈 / 편집인 김창언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강수정 / 편집국장생도 이주형 / 충성대신문사(054) 330-3605 www.kaay.mil.kr
210호 사진제공 및 편집: 주무관 이성주, 일병 백준소

제39·40대 학교장 이·취임



▲ 40대 학교장 박성훈 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국, 명예, 충용의 기치 아래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며, 가슴 속에 큰 꿈을 품어 다가오는 전장의 승리가 될 사관생도를 육성하고, 우리 충성대 전우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뤄야 할 꿈과 소망스러운 미래를 열어가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고 믿기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여러분과 함께 꿈을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며, 언제나 동행하는 여러분의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 40대 학교장 박성훈 소장 취임사 중에서 -

지난 11월 29일, 제39·40대 학교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한 박성훈 소장은 3사 29기로 임관하여 6군단 작전처장, 1군단 참모장, 제8기동사단장,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박성훈 학교장은 취임사에서 학교 장병 및 생도들과 함께 하며, 언제나 동행하는 여러분의 학교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취임사 마지막에 “2024. 11. 29.(금) 영광스러운 날, 나의 사랑 충성대에서”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며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소령 권영우



▲ 취임 학교장 박성훈 소장이 취임사전 행사병력의 경례에 답하고 있다.



▲ 이·취임 학교장이 열병하고 있다.

2024년 국방부 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

군사사학과 박영진 교수, 국방시스템학과 조성진 교수



▲ 우수상을 수상한 군사사학과 박영진 교수

군 정신전력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개최한 ‘2024년 정신전력강화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학교의 교수들이 국



▲ 장려상을 수상한 국방시스템학과 조성진 교수

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국방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본 공모전은 정신전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발전, 각급 부대에서 적용 가능한 발전방안이라

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신전력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문화예술활동과 연계한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역사와 국가안보 관련 연구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수많은 경쟁 작품 중에서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수여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2명의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군사사학과 박영진교수(3사 48기)는 「인지전 개념과 정훈병과의 역할에 대한 시론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국방시스템학과 조성진 교수(3사 51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 교육 방안 연구」 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정신전력 발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박영진 교수와 조성진 교수는 3사관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각 기수에서 1등으로 졸업한 인재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박영진 교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2024년 디지털 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에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학교를 빛낸 바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박영진 교수는 “이번 공모전에 수상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을 계기로 학교를 더욱 빛낼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조성진 교수는 “이번 상을 통해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더 매진하여 학교의 명예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소령 권지민

제42 · 43대 생도대장 이 · 취임



▲ 정영규(오른쪽) 신임 생도대장이 박성훈 학교장으로부터 지휘봉을 받고 있다.

생도대장은 항상 조국 · 명예 · 충용의 핵심가치와 전승을 주도할 아전 임무수행 능력, 군사전문가의 기본소양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신독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반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생도대를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 43대 생도대장 정영규 준장 취임사에서 -

지난 12월 2일, 제42 · 43대 생도대장 이 · 취임식이 거행됐다. 신임 정영규 생도대장은 3사 32기로 임관하여 50사단 동원참모, 육본 동원참모부 실무자, 51사단 여단장과 참모장, 육본 동원참모부 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다. 정영규 생도대장은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선도할 다부지고 당찬 충성대 호랑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최고의 정예장교로 양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생도들과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생도대장의 중책 수행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주무관 길진규



▲ 이임하는 김민식 준장과 취임하는 정영규 준장이 학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정영규(오른쪽) 신임 생도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62기 충성기초훈련 입교식

“마음 따뜻한 장교로 성장하길”... 첫걸음에 건넨 당부

지난 1월 6일 교내 충성관에서 62기 충성기초훈련 입교식을 거행했다. 입교식에는 가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기훈생도와 학부모 · 친지, 학교 관계자 등 총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생도대장 환영 인사 ▶선배 응원 영상편지 상영 ▶기초군사훈련 소개 ▶기훈생도 각오 발표 ▶부모님 편지 낭독 ▶기훈생도 입교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부모 대표로 편지를 낭독한 권도혁 기훈생도 어머니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다치거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며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동기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장교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입교한 기훈생도들은 앞으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군인으로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군대에 적응하고 기초전투기술을 함양하게 된다. 이어 모든 훈련이 끝나는 2월 14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영규 생도대장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 기훈생도가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령 권영우



▲ 정영규 생도대장이 기훈생도와 학부모에게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3사의 새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학교는 최근 8개의 신축 건물을 완공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건물들은 생도와 간부들의 학습, 근무, 복지,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완공된 8개의 신축 건물들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학교의 미래를 담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공간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주무관 강수정

학교 본관

학교 본관은 학교 발전의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시작된다.



충성의 집

충성의 집은 생도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설들을 통해 생도들의 재충전을 돕는다.



중악관

중악관은 학교 간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편안한 휴식과 업무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충성관

충성관은 약 1,30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위한 최적의 시설을 자랑한다. 이곳은 생도들과 간부들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통해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시열대

시열대는 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매년 입·전학식과 임관식 같은 주요 행사뿐 아니라 충성제 등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된다. 생도들에게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세우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KAAY광장

약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KAAY광장은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이다. 생도들의 공연과 학교의 대표적인 행사들이 열리는 화합과 힐링의 장소가 될 것이다.



3층용관

생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 3층용관은 최신 설비와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생도들이 학업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군악연주실

군악연주실은 군악대의 전문적인 연습과 공연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군악대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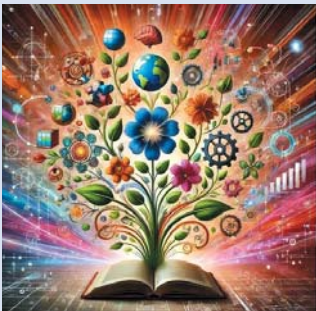
제9차 교과과정 준비를 통한 학교 교육의 혁신

기본에 충실하고 정에 선진 강군을 주도할 핵심 인재 육성

교과과정연구위원장 대령 두 석 주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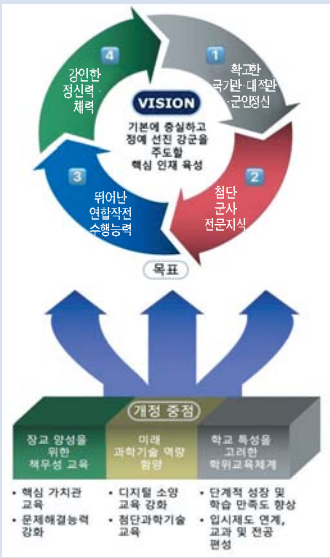
교과과정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이는 교과과정이 단순히 정적인 지침서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등장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과과정은 수정되고 보완된다. 마치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듯이, 교과과정 역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기존의 교과과정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도록 진화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주제들이 학교에서는 지난 교과과정에 잘 반영됐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교과과정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해는 모든 학문과 기술의 근간을 이루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쌓이는 고급 지식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법이다.

또한 교과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교수와 사관생도,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과과정에 참여하며, 그들의 피드백과 경험은 교과과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는 마치 생명체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과도 같다. 예컨대 교수가 강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법이 제안되고, 이는 다시 교과과정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교과과정은 단순히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풍요로워지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사관생도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돌보며,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2025년부터 시작될 제9차 교과과정을 준비해 오고 있다.



〈그림 2〉 제9차 교과과정의 비전

업 후 실제로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교과과정의 목표는 첫째, 장교로서 구비해야 할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의 확립, 둘째, 국방혁신 4.0 구현에 기여할 첨단 군사지식의 습득, 셋째,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고 연합적전 수행을 위한 소양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의 연마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에서는 군인정신 확립에 필요한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교과목을 필수교육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군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넓은 기초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이버전, 프로그래밍, AI 등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첨단과학기술 관련 과목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과학기술 역량

을 함양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성장을 도모하고 개인별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향후 생도 모집 및 입사와 연계된 교과 체계 및 전공학과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점 체계 설계

대학에서 학점 체계 설계는 교육 목표와 성취 연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습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점 체계는 생도들이 졸업 후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설계되고, 이를 통해 학교는 생도들이 전공 지식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력, 글로벌 경쟁력 등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즉, 학점체계는 단순히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소를 넘어, 생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아울러 학점 체계는 생도들의 학습 부담을 조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 방법과 경험을 포용하는 학습의 유연성도 보장한다. 생도들은 정규 교과뿐 아니라 인턴십, 연구 활동 등 대체로운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개인의 목표와 관심에 따라 학습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학점 설계는 생도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학습의 깊이와 다양성을 모두 경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5년부터 시작되는 교과과정의 학점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졸업 이수학점을 140학점으로 기존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본교에서의 일반학 전공과 군사학 전공 학점을 각각 40점으로 설계하여 기존 교과과정과 비교하여 16학점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구분	졸업 이수학점	본교 이수학점			전수대학 인정학점
		소개	일반학 전공	군사학 전공	
기존	140학점	96학점	48학점	48학점	44학점
개편	140학점	80학점	40학점	40학점	60학점

〈표 1〉 교과과정 학점 체계 비교

기존의 교과과정에서는 생도들이 학점을 모두 이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도들에게 자율적인 학습이나 창의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과정에서는 생도들에게 과도한 학점 이수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율성과 창의적 탐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욱 실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틀에 얽매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은 본 교과과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줄어드는 학점 체계에서도 생도들이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학 전공을 교양, 기초, 일반, 심화 과목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단계별 기초와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생도들은 흥미와 열정에 따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창의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턴십 과정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양한 팀원들과 협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사관학교로서의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장교로서 기초 교양과 정신전력을 함양하고, 연합적전 능력과 무기체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사학 전공과정을 교양, 필수, 선택, 군대체육 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공학과 개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각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다. 사관학교는 대학 교육을 통해 이론적인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군사적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학과 설계는 시대적 요구와 기술적 변화에 맞춰 학문을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새로운 전공을 설계하고, 기존 전공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미래 육군의 장교로서 생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다.

2025년 교과과정에서는 먼저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방사이버과학과, AI·시스템과학과, 무기공학과의 새롭게 도입된다. 국방사이버과학과는 네트워크, 사이버전 공격 및 방어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군 사이버전의 인재를 양성한다. AI·시스템과학과는 민간 사회의 획기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여 군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한다. 무기공학과는 탄도공학, 무인체계, 국방과학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미래 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로 우수 인재를 영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제지역학과와 국방체육학과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국제지역학과에서는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등)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 미래 글로벌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학 및

지역학 기반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체육학과에서는 체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육학 이론과 실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통솔력이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방위사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관리학과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방관리학과에서는 K-방산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방위산업 전문가의 육성을 담당한다.

인문학	사회과학	이학	공학	체육학
군사사학 영어학 심리학	국방관리학 정치외교학 법정학 국제지역학	국방사이버과학 AI·시스템 과학 화학환경 과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건설공학	국방체육학

〈표 2〉 2025년 개설 전공학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교과과정 운용

오늘날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적 발전에 맞춰 생도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생도들의 흥미와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안들이 필요하다. 자율전공 제도 도입, 인턴십 제도 운영, 학점 교류 등은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가. 자율전공 제도

일반 대학의 자율(자유)전공 제도는 학생이 특정 전공에 얽매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는 학습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학년 때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전공탐색기간을 거친 후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자율전공 제도를 도입해 3학년 1학기는 전공이 없는 무전공 과정으로 진행되며, 3학년 2학기부터 전공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입학 후 첫 학기 동안 전공학과를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관심과 목표를 정한 이후 1학기 말에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3학년 2학기부터는 전공별로 준비된 교과과정을 깊이감으로써 전공에서 추구하는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나. 인턴십

학문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대학들이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은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환경에서 실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는 2024년 2학기에 대표적 방산 기업인 LG넥스원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풍산 기업과는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5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생도들은 LG넥스원에서 레이더(Radar) 등 감시정찰 자산과 유도무기체계에 대해서, 풍산과는 탄약의 성능평가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인턴십 과정을 통해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생도들은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는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장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점교류 확대

학점교류 제도는 여러 대학 또는 학문 간의 협력을 통해 생도들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생도들에게 교육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른 대학의 특화된 전공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지난 8차 교과과정에서부터 서울대학교(미래군사전략과정),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경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학점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국내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 등 해외 대학과의 협력으로도 확대해 가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점 교류는 생도들이 국제적 관점을 익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래 연합적전 수행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교과과정은 하나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이룬다. 특정 전공학과나 과목들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형성한다. 이는 생명체의 세포, 조직, 기관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유기체의 생명 유지에 이바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듯이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제9차 교과과정을 통해 학교는 빠른 환경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적응하고, 사회와 군의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하고 정에 선진 강군을 주도할 핵심 인재들을 훌륭히 육성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생도, 교수의 서재를 탐방하다!

60기강준성,강지애,배광진,이승환기자생도

군사사학과 **문준호** 교수

최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책을 멀리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고 다양한 책을 접하며 생도들이 책과 더욱 친밀해지길 바라며, 군사사학과 문준호 교수님의 서재를 탐방해 봤습니다.



Q 역사에 흥미가 있고, 책을 좋아하는 생도들에게 추천할 도서가 있으시다면?

A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2권입니다. 첫째는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있어 역사학의 효용성을 다루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고, 둘째는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논문 잘 쓰는 방법>>입니다.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책을 경원시하는 문화가 실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도들에게 쉬운 문체이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효과성이 큰 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두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역사의 쓸모>>는 한국의 대표 역사강사이자 작가인 최태성이 집필한 책으로, 역사를 통해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삶에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역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공부다.”라는 전제 속에서 과거 인물들의 결단과 선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 단일한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강조와 다각적 관점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적은 유의미 합니다.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응용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삶의 지침서”로서 역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논문 잘 쓰는 방법>>은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저술한 책으로, 학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최초의 단계로써 논문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기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글을 쓰는 기술, 정리된 사고 전개 등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교양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정돈된 형태로 설명하는 연습으로써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사고와 연구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논문 작성이라는 과제에 실질적으로 투영되는데, 이는 우리 생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고급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써 ‘개념’과 ‘논리’는 중요합니다. 저는 지휘와 통제의 핵심이 ‘설득’에 있다고 보거든요. 강제와 선언이 아닌 논증과 전거의 활용은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논리적 글쓰기의 연습 과정이 학부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책을 고르는 법과 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일단은 책이 모여있는 곳, 서점이나 도서관 등에 가보면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흥미가 있는 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점과 도서관에 자주 가면 공간이 주는 지식 함양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각 사관학교 도서관에서 추천해주는 책 목록이나 대학기관에서 선정한 ‘이달의 책’ 같은 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는 국방부 추천도서 등 군과 관련된 단체의 추천도서를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과 소통하

며 양서를 추천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책 자체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읽어보는 것이 문해력과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나타내기에 좋을 것입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라면 ‘사관생도의 서재’, ‘장교의 서재’에 어울릴 만한 책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 전략, 역사와 관련된 서적들에 대하여서는 생도들이 책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책 구매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무언가를 쓰고, 밑줄 그으며 읽은 티를 팍팍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삶의 동반체로 책에 의미부여 하길 바랍니다.

Q 본인의 전공이신 역사와 역사교육에 관하여 생도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저는 역사라는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전공을 접하였습니다. 학부는 군사사, 석사는 한국근대사, 박사는 한국현대사를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에서는 역사교육과에서 수학하였는데, 이는 역사학에 내재한 정치 사회성을 논구하기 위한 나름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국민에게 교육되어야 하는 역사에 대한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면서, 거칠게나마 역사 공증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의 영향력 발휘와 국가정체성 확립에의 효용성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한편 2020년에 들어서부터 역사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 확장성이 크다는 학계의 중론에 따라, 많은 역사학 전공자들이 역사교육과에 집중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민군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자체에 대한 학문적 고찰과 더불어 현실의 토대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역사교육은 역사학의 매력적인 분과입니다. 특히 저는 국가에 의해 선별된 과거로서의 보존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 단위의 집단적 기억을 살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길고 깊은 고민 끝에 다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애국시민양성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보존은 국가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생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저는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교양서를 자주 읽지는 못합니다. 일상이 논문 작성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도서관에서 접하는 책들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고, 풀리지 않은 연구 주제에 관한 고민을 일시해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생도들도 다방면에서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효용성만 따지며 ‘최단거리’로만 가기보다 여러 책들과 마주하며 역량을 길러보는 게 어떨까요? 어쩌면 지혜와 지식은 과도한 목적지향적 사고로부터 탈피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년에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꼭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하는 생도 생활에서 가끔은 한 발짝 물러나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으로 스스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는 삶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있을 것입니다.

60기 생도 졸업사진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은 '어떠한 사건이 외부의 관측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계를 이르는 말'로 가수 윤하의 본인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에서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모퉁이에선 우리를 응원하며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60기 생도들도 임관일이 다가오는 만큼 마음의 고향과 같은 충성대와 이별해야 하겠지만, 임관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동기생들과 보낸 순간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60기이 주 형, 61기 이에 찬기자생도



시선을 집중시키는 수려한 교수님들이 많은 **경제경영학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군사사학과**



말싸움은 여기라 하데? 논변의 최고봉 **법정학과**



3사교 뚝뚝이들 집합소 **컴퓨터과학과**



공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방에 이바지하는 **기계공학과**



튼튼한 국방의 초석을 다지는 주역들 **건설공학과**



기슴이 따뜻하고 멋진 **심리학과**



장차 첨단과학기술강군 도약을 선도할 **전자공학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 가장 많은 생도가 졸업하는 **정치외교학과**



소수정예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화학환경과학과**



미래 전장을 선도할 국방기술의 선구자들 **국방시스템과학과**



세계로 뻗어가는 육군의 언어 전문가들 **영어학과**

일본 간부후보생 방한 행사, 생도와 후보생의 소감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들이 참여한 교류행사가 지난 11월 26~27일 이틀간 충성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미래 군사 지도자로 성장할 사관생도와 간부후보생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며, 두 나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각국을 대표하는 간부 양성 기관이 참여한 이번 교류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주었다.

교류 행사 기간 동안 생도와 간부후보생들은 체육 활동과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 양국 간 조직문화의 이해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양국의 군사적 특성과 전통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공식 행사와 교류행사의 조화를 통해 형식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 간부후보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 1명 또는 2명이 일본 간부후보생 2명과 매칭되어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쌓았다. 행사에 참여했던 일본 간부후보생은 기자생도와 인터뷰에서 3사 생도를 통해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고 생도대 내의 설비는 잘 갖추어져 국가적으로 생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책상 위에 책들을 보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언젠가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자신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체육관에서 줄넘기 응원을 했을 때라고 말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여 응원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생도와 매칭되었던 다른 후보생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다고 말했다. 다소 인생의 재미를 잃어가던 와중에 본인에게는 3사 생도와

만남이 인상적이었으며 자신보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중 만찬에서 생도와 후보생들의 무대는 화려하고 서로에게 좋았던 것이어서 정말 만족했다고 말했다.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준 생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육군3사관학교의 학교장님을 비롯한 학교 간부님들과 일본 간부후보생 학교장님과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육군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또한 기자생도와 인터뷰에서 일본 간부후보생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후보생을 만나면서 전부 해결됐다고 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후보생과의 만남은 양국의 관점이나 환경에 맞게 서로에게 잘 설명해주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 너무 좋은 만남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생도는 만찬 이후 개인시간에 일본간부 후보생과의 만남에서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보면서 서로에게 더욱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생도는 인터뷰에서 일본 간부 후보생들과의 매칭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교류의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체육대회나 만찬에

서 볼 때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으며 국적과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 20대 청년이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게임을 하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했던 게임을 이기고 터져나온 환호성과 무엇보다 든든했던 갈비탕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이라며 좋은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관생도와 간부 후보생들이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확인하며 미래의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의 일상에서 이들의 추억을 새기며 그때는 그랬지 하며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0기 강준성, 이승환 기자생도



2024년 제23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육군사관학교장-세종대학교 총장상 수상자 인터뷰

4학년(60기) 김예슬 사관생도가 2024년 제23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육군사관학교장-세종대학교총장상(개인주제발표 및 집단토론 과학기술 분야 우수)를 수상했다.



4학년 60기 김예슬 생도

김예슬 생도가 발표한 주제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 사이버 역량 강화’라는 큰 틀에서 ‘국방형 컨트롤 타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운 작전 환경인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구축 ▶민관군 협력과 국가 사이버 역량 총동원 ▶사이버 인재 양성과 예비 전력 활용 및 전문성 구축 방법을 제시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예슬 생도는 1차적으로 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읽었고 특히, ‘사이버 전자전’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군사사학과 박동휘 교수가 집필한 『사이버 전자전의 모든 것』을 통해 사이버전에 대한 지식을 다졌다. 부족한 것은 사이버전과 관련된 뉴스 자료와 영상매체를 참고하며 지식을 보강했다.

김예슬 생도는 지난해 대회에서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심사위원의 총평을 기억하며, 이를 바

탕으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논문을 최대한 많이 읽고,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구체적인 논문, 서적, 수치 등 근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국방 분야에 애정과 관심도 큰 몫을 했다. 김예슬 생도는 안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사관생도, 병사, 대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변화하는 미래 전장 형태에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평소부터 많은 생각을 하였다.

김예슬 생도는 “이 대회가 생도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기회이며, 작년 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도 도전했다”라며 “임관 후 기회가 된다면 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싶고, 대회 참가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한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60기 강지애 기자생도

생도 문화체육활동 소개



충성대신문사 주간과 기자생도들이 2024년을 마무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관생도들의 문화체육활동은 생도들이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미래 장교로서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도들끼리 우정을 쌓고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는데, 활동은 학술위원회, 체육위원회, 예능위원회로 나누어진다. 그 중 이번 호에서는 학술위원회 소속 충성대신문사를 소개한다.

‘역사’와 ‘전통’의 충성대신문사

충성대신문은 1974년 5월 20일 창간되어 2024년 10월 209호까지 발행했다. 신문은 격월로 발행되며, 현재 4학년(60기) 7명, 3학년(61기) 3명이 함께 활동하며 생도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하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충성대신문사 생도들의 신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장생도 주도 아래 생도들의 이야기를 담을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 담당자를 배정해 기사를 준비한다. 약 한 달 동안의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 주간 및 부주간 교수님과 정훈실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고 편집 과정을 거쳐 신문이 발행된다.

충성대신문사는 선배들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와 생도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임관을 앞둔 4학년(60기) 생도들은 약 2년여 동안의 신문사 활동을 통해 생도 생활과 학교소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며 성장했다. 3학년(61기) 생도들은 2025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소식과 생도 생활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충성대신문사는 앞으로도 생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학교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60기 이재원 기자생도



칼럼 I



소령(진)정 상준
(공학처 건설공학교수)

학교로 2023년 2월 전입은 후 생도들을 교육한 지 만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앞서 2년을 돌아켜보면 후배 장교가 될 생도들을 가르치는 기간이 나에게 정말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약 2년간 수업 시간에 생도들을 관찰하며 교육한 결과, 우리 생도들은 거시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습과 미시적으로 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생도들에게 학습과 공학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싶다.

먼저, 학사과정(Bachelor's Degree)의 사전적 정의는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

위'이다. 학사과정의 주요 목적 중 두 가지를 제시한다면 첫 번째, 선택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분석 능력을 높이는 기초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실무나 상급 학위를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나는 2014년 건축공학사를 취득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생도들

이 바로 학사과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장교로 임관 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임무들을 부여받았고, 그 중 전공지식이 필요한 임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만약 학사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장교로 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공학에 대해 알아보자. 공학은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학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자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며,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구조적 사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작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학적 접근법은 군사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 국가 안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부 생도들은 전수대학 또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공학과 관련 없는 분야를 수학 후, 불가피하게 공학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장교 중 일부는 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군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임무인 학업성취를 위해 학습에 매진하는 60기, 61기 생도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학위과정을 위한 학습과 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해 본다.

학사학위의 의미와 공학적 사고의 필요성

과 비슷하게 "너무 어렵다. 나중에 써먹을 것 같지도 않은 학문을 왜 공부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임관 후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학사과정 4년을 학습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내가 결론 내린 학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넓은 이해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미 건설공학과 생도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초석

동차도 공학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 현대 군사 작전은 자율 무기체계,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기, 극초음속 무기 등 최첨단 기술에 크게 의존하며, 이러한 기술은 전장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고급 장교가 될 생도들은 공학적 사고와 기술 활용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학은 군사 인프라의 설계, 전술 통신 체계, 사이버 방어 체계 등 군사

칼럼 II



대위 신성균
(사회학처법정학 교수)

여러분은 사관생도로서 국가와 군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 여정에서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행정학은 조직과 리더십의 관계를 탐구하며, 리더가 어떤 자세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Herbert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Max Weber의 관료제 이론은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행정학자 Herbert Simon은 우리가 완벽한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의 제약 속에서 가능

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이론은 특히 우리가 속한 군과 같은 조직에 적합하다. 전장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없으며, 실행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

사관생도로서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수많은 선택은

멜로 설명하며, 규정과 계층적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일관되게 만들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군 조직은 Weber가 설명한 관료제의 이상적 모델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경이다. 그러나 Weber는 관료제가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이 변화하거나

최선의 선택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Weber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사관생도로서 여러분은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는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 리더십은 정해진 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행정학 이론에서 배우는 리더십

단순한 연습이 아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Simon이 말한 리더십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력과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Max Weber는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과 계층적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관료제를 조직 운영의 이상적 모

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는 규정을 준수하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상황에 적합한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규정과 지침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요구한다.

Simon은 리더십에서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실행 가능한

Herbert Simon 제한된 합리성	Max Weber 관료제 이론
- 현실의 제약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 중시 - 완벽을 추구하기 보다 행동을 통한 결단력과 문제해결 중심 리더십 강조	- 규정과 계층적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들의 일관성 있는 행동 유도 및 조직질서 유지 - 환경 변화, 문제발생시 규정을 준수하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판단과 결단 강조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Simon과 Weber가 제시한 이론을 생각하며,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

칼럼 III



소령 박영진
(인문학처군사사학 교수)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소의 익힘 정도입니다.”

얼마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열풍이었다.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는 새로운 문화의 유형을 뜻하는 일종의 밈(Memé)도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인이 얼마나 미식(美食) 문화에 열광하는지 느낄 수 있다. 시즌1이 종결된 시점에서도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느낄 수 있는 치열함과 자극성은 차치하더라도, 방송의 팀전 미션 중군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흑백요리사의 팀전은 백수저와 흑수저 간 대결로 이루어져 있다. 백수저는 이미 검증된 유명 요리사로 구성되어 있고, 흑수저는 이에 도전하는 실전 요리사 위주이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누구나 백팀의 우세를 예상한다. 이미 공인된 자격과 화려한 이력은 백팀의 저력이기 때문이다. 반면 흑팀은 수저계급론의 최하위 계급을 의미하는 ‘흙수저’와 비슷한 어감답게 언더독(Underdog)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

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 사마의, 곽가, 주유, 가후 등과 같은 최고의 군사(軍師)들을 한팀으로 만들어 하나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말 잘될 것 같은데 의외로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에 흑팀은 최초 출발부터 리더 중심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종상태를 그려놓고 시작했으며, 팔로워는 팀의 틀 안에서 완성된 그림 안에 자신이 맡은 영역을 그려낼 수

이나 과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임무를 완수하여 군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기여해야 하는 바는 모두 같다.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별개로 개인이 그냥 하고 싶은 무언가를 관성에 의해 열심히 하는 것은 올바른 조직원의 역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 목표 없이 무작정 성과만 독촉하는 것 역시 좋은 지휘자의 모습이 아니다. 리더는 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려주어야 하고, 팔로워는 소통과정에서는 적극 의견을 제시하되, 임무에 돌입했다면 그안에선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절제하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조직의 최종상태를 그리는 것도,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모두 리더의 역할이며 팔로워는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이다.

흑백요리사의 ‘흑팀’이 서바이벌 팀전 미션을 수행하며,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닌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듯, 군인 역시 개개인 특성이 모두 다르지만, 조직의 임무 완수를 위해 부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상하동욕자승(上下同慾者勝)”하는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흑백요리사를 통해 본 리더십과 팔로우십

었다. 그러나 팀전 미션인 ‘고기’ 재료를 활용한 100인분 제작 미션에서 양팀의 승패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준비-실시’, 그리고 ‘평가’까지 극적인 반전을 나타냈다.

백팀은 한명 한명이 모두 화려한 이력답게 자신만의 ‘요리철학’이 굳어진 완성형 리더들이다. 그러나 팀전 수행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져 임무를 달성해야 하니 의견 조율이 매우 어려웠고, 팀이 실질적 리더가 부재한 채 중구난방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마치 “사공이 많

있도록 충실했고, 결국 미션 승리를 이끌어냈다. 흑팀의 구성원들도 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색깔과 목소리를 냈지만, 과정에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며 팀의 임무 완수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임무를 대하는 흑백팀의 각기 다른 자세는 군 조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 조직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견제 단위로 모여 협업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전투 부대는 하나의 소대 또는 중대가 될 수도 있고, 참모조직에서는 하나의 팀

학교발전자문위원 칼럼



이철재 연구소장
(중앙일보국방선임기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시작한 전쟁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으로 꼽힌 러시아가 완승할 것이란 전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장담할 순 없겠지만, 최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껏해야 ‘피로스의 승리’가 최선의 결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인 제프리 크루소(Jeffrey A. Kruse) 중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도 뛰어 넘는다”고 경탄했던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투 의지가 러시아와의 현격한 전력 차이를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 까닭이겠지만, 러시아가 못 싸운 탓이 더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민낯을 보여줬다. 무능한 지휘관, 훈련이 부족한 병사, 낡아빠진 전술, 스펙에 못 미치는 무기, 방산비리로 형편없는 보급 등 총체적 부실 말이다. 이와 같은 군사적 요소만이 이번 전쟁의 향방을 설명하진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로 바라본다면 또 다른 지평이 열린다.

의’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례다.

권위주의 체제는 겉으로 보기엔 강하다. 권위주의 독재자는 군복을 즐겨 입는다. 국가기념일이면 열병식이 빠지지 않는다. 국가는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는 군사적 과시에 집착하는 것만큼 군사적으로 강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Wehrmacht)과 무장친위대(Waffen SS), 현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 이란의 이슬람공화국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권위주의 체제에선 2개 이상 집단이 국가의 무력을 분점한다.

권위주의 체제는 능력보다는 충성을 기준으로 군 지휘관을 임명한다. 상급 지휘관이 하급 체대에 자율권을 부여할 리 만무하다. 게다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 러시아도 정치장교를 운영하면서 군을 감시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 찢찢매는 이유들이다.

민주주의 체제가 늘 권위주의 체제에 이긴다는 얘길 하자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보기보다는 약하며, 군사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자멜 부이는 “권위주의 국가는 전쟁을 좋아하지만, 전쟁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기질과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 환경이 불안정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 체제의 힘이다. 또 여러분이 유사시 온몸을 바쳐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가치다.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찢찢매는 이유

모든 독재국가는 권위주의 체제다.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의 전형이며, 김씨 일가가 3대째 철권통치를 펴는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의 끝판이다.

러시아도 그렇다. 러시아는 시장을 허용하고 야당이 참여한 선거를 치른다. 이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독재를 숨기는 장치에 불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언론인은 정체불명의 과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심지어 의문사까지 당한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표함은 ‘러시아식 민주주

의’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례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는 그 자체가 심각한 군사적 약점이다. 왜냐하면 독재자는 군을 못 믿는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일찍이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杆子里面出政)”고 말했다. 독재자는 ‘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달고 산다.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 군대의 주적은 외부의 적 이 아니라 내부의 불만세력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군이 미덥지 않아 군대를 갈라놨다. 나치 독일의 국방군

2025트렌드 노트

1인가구의 기쁨과 슬픔



정 현 아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어른이 되면 드라마 속 커리어우먼 여자 주인공처럼 깨끗하고 넓은 집에 들어가 홈웨어를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자취남 채널에 한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 1인 가구의 삶을 살고 있다. 사실 자취남 채널은 5평 이하의 원룸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1인 가구를 보여주고 있어 오피스텔에 혼자사는 1인으로 나올 것 같지만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 혼자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담는다는 기획 의도를 가진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나 혼자 산다> 뿐만 아니라 최화정, 고현정, 강민경과 같은 멋있는 언니들의 혼자사는 꿀팁이 담긴 유튜브부터 유명인의 브이로그까지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자취남과 같은 현실적인 사람들의 일상부터 화려한 연예인들의 일상까지 1인 가구가 사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체를 알고 있는가?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			
순위	키워드	언급량	비중	순위	키워드	언급량	비중	순위	키워드	언급량	비중
1	좋다	9088	19.2%	1	좋다	4076	16.9%	1	힘들다	2982	15.0%
2	행복	4189	8.9%	2	힘들다	1790	7.4%	2	좋다	2668	13.5%
3	힘들다	3725	7.9%	3	행복	1643	6.8%	3	행복	1727	8.7%
4	괜찮다	1860	3.9%	4	예쁘다	1345	5.6%	4	잘하다	800	4.0%
5	예쁘다	1741	3.7%	5	싸우다	1283	5.3%	5	돕다	761	3.8%
6	편하다	1507	3.2%	6	즐거다	1182	4.9%	6	궁금하다	689	3.5%
7	힐링	1503	3.2%	7	맞추다	972	4.0%	7	싸우다	669	3.4%
8	싫다	1467	3.1%	8	잘하다	846	3.5%	8	힐링	644	3.2%
9	잘하다	1448	3.1%	9	싫다	760	3.2%	9	괜찮다	632	3.2%
10	너무좋다	1415	3.0%	10	너무좋다	754	3.1%	10	예쁘다	586	3.0%
11	즐거다	1414	3.0%	11	괜찮다	718	3.0%	11	잘먹다	561	2.8%
12	귀찮다	1356	2.9%	12	궁금하다	695	2.9%	12	싫다	545	2.8%
13	맞추다	1355	2.9%	13	편하다	598	2.5%	13	어렵다	523	2.6%
14	궁금하다	1318	2.8%	14	로망	591	2.5%	14	지치다	437	2.2%
15	돕다	1247	2.6%	15	만족하다	588	2.4%	15	신나다	410	2.1%
16	어렵다	1202	2.5%	16	돕다	561	2.3%	16	맞추다	409	2.1%
17	로망	1185	2.5%	17	어렵다	540	2.2%	17	말기다	404	2.0%
18	재미있다	1033	2.2%	18	귀찮다	503	2.1%	18	사랑하다	396	2.0%
19	필요하다	975	2.1%	19	잘먹다	447	1.9%	19	바쁘다	390	2.0%
20	만족하다	972	2.1%	20	잘어울리다	426	1.8%	20	필요하다	374	1.9%
21	싸우다	785	1.7%	21	깔끔하다	417	1.7%	21	아끼다	359	1.8%
22	귀찮다	782	1.7%	22	재미있다	415	1.7%	22	편하다	356	1.8%
23	잘먹다	778	1.6%	23	사랑하다	411	1.7%	23	쉽지않다	354	1.8%
24	사랑하다	771	1.6%	24	필요하다	411	1.7%	24	너무좋다	348	1.8%
25	깔끔하다	761	1.6%	25	아쉽다	402	1.7%	25	즐거다	340	1.7%
26	외롭다	736	1.6%	26	힐링	372	1.5%	26	만족하다	328	1.7%
27	아쉽다	731	1.5%	27	귀찮다	369	1.5%	27	답답하다	320	1.6%
28	아끼다	683	1.4%	28	바쁘다	352	1.5%	28	미안하다	282	1.4%
29	불편하다	659	1.4%	29	불편하다	317	1.3%	29	웃다	262	1.3%
30	바쁘다	626	1.3%	30	바쁘다	307	1.3%	30	행겨주다	261	1.3%

Data1. [가구별 집(G) 연관 감성 비교] 출처: 썸트렌드, Blog&Community, 20210101~20241031

가구별 연관 집에 대한 감성을 살펴보면 행복, 편하다, 힐링과 같은 좋은 감성이 많이 보인다. 힘들다가 1위인 3인 이상의 가구와 5위에 싸우다가 있는 2인 가구와도 대비 된다. 결혼 전 잠깐의 삶의 형태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꿈에만 그리던 독립을 통해 1인 가구는 혼자여서 힐링되고, 편한 집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감상은 잠깐일 뿐, 우리에게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좋은 감성 뒤에 바로 귀찮다, 외롭다, 불편하다는 감성이 뒤따른다. 2인 가구는 맞춰 가면 함께 집안일을 해내고 3인 이상의 가구는 돕다, 말기다,

행겨 주다로 가족 모두가 서로 도와간다면 1인 가구는 외롭게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 혼자 사는 그들이 귀찮고 불편하지만 혼자서 해내야 하는 집안일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혼자 사는데 집에 뭘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아근도 안하냐’는 상사의 말에 ‘나는 1인 가정이라 내가 집에 가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대답해 유명해진 밈을 아는가? 많은 1인 가구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전국의 모든 1인가구의 사정을 꿰뚫는 명문이다. 내가 없으면 집은 존재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남들은 가족끼리 나눠 하는 집안일이 1인 가구는 모두 자기 차지다.

TOP 10				BOTTOM 10			
순위	키워드	언급량	증감율	순위	키워드	언급량	증감율
1	스탠바이미	45	4.72%	1	에어프라이어	1149	-2.18%
2	홈캠	94	2.55%	2	프로젝터	227	-1.77%
3	음식물처리기	143	1.69%	3	비데	97	-1.73%
4	로봇청소기	321	1.65%	4	캠솔머신	60	-1.48%
5	런닝머신	113	1.07%	5	텐테이블	77	-1.37%
6	제습기	386	0.77%	6	에스프레소머신	71	-1.31%
7	건조기	1206	0.71%	7	무선청소기	212	-1.15%
8	세탁기	2235	0.22%	8	가습기	348	-1.14%
9	식기세척기	525	0.15%	9	다리미	97	-1.12%
10	냉동고	297	0.03%	10	스피커	462	-1.05%

Data 2. [1인가구 연관 가전 증감률 TOP10 vs BOTTOM10]
출처: 썸트렌드, Blog&Community, 20210101~20241031

1인 가구 관련 뜨는 가전을 살펴보면, 음식물처리기, 로봇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편의 가전과 스탠바이미의 취향 가전으로 나뉜다.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는 신혼부부 필수 구매 가전으로 3대 이모님으로 이야기된다. 이 가전들이 이모님 가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내가 없을 때 알아서 가사노동을 해주는 가전이기 때문이다. 1인 가구에게도 이모님이 필요하지만 1인 가구의 표현은 조금 다르다. “1인 가구 반려 가전 최강자 투표 건

주는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1인 가구의 집안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빨래·세탁은 건조기가 해결해주고 있다. 보통 건조기를 구매하는 이유에 항상 뽀송한 호텔식 수건을 생각하겠지만, 1인 가구가 건조기를 집에 들인 이유는 호텔식 수건에 해당하는 삶의 질 보다 나옴에도 해결된다는 편안함 때문이다. 세탁한 후에 빨래를 널어야 한다는 수고스러움과 좁은 집 한켠에 차지하고 있는 빨래 건조대를 보지 않을 수 있어 건조기를 선택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려놓고 출근하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의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기세척기 또한 넣어 놓으면 알아서 설거지를 해결해주며,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모두 1인 가구를 위해 소형가전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다. 많은 용량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

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가전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작은 집 사이즈에 맞춰 소형가전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 1인 가구에게 필요한 가전은 내가 없어도 해결 될 수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는 집안의 가장이자 집안의 유일한 구성원이다. 편리함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어도 해결 가능함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1인 가구는 집에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퇴근 후의 자유를 위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가전제품을 구매한다. 1인 가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족이다.

한때 모든 집으로 들어 왔으며, 특히 1인 가구의 필수템으로 여겨지던 에어

프라이어와 스탠바이미 이전의 대표적인 취향 가전이자 ‘오늘의 집’ 집들이 단골템인 빔프로젝터 역시 지고 있다. 두 제품은 1인 가구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니즈는 해결해주지 못해 그들의 집에서 퇴출되고 있다. 에어프라이어는 죽은 치킨을 살리고, 냉동식품을 밖에서 먹는 퀄리티로 변화시키지만,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마주하는 냉동식품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1인 가구는 누구보다 본인을 케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냉동식품은 한 끼를 대충 때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빔프로젝터는 자취의 낭만을 실현시켜주고, 큰 tv를 대신 하였지만, 큰 벽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스탠바이미에 의해 교체되었다. 스탠바이미는 이동이 가능하여 공간 활용과 360도 회전으로 편리함에서는 견줄 수 없다. 원룸인 1인 가구는 이동성이 한정되어 있어 좀 더 저렴하게 삼성 모니터와 거치대를 구매하여 스탠바이미를 만들기도 한다. 취향의 가전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선택하고 있다. 더 이상 로망만 있는 가전은 1인 가구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의 가전이 1인 가구에게는 가족이다. 집은 여전히 행복과 힐링의 장소이며, 나를 돌보는 곳이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특히 1인 가구는 본인이다. 니리면 돌볼 사람이 없다. 퇴근 후에도 깔끔하고, 따로 손댈 필요가 없는 집이 반겨주길 원하는 1인가구에게 반려 가전으로 선택될 다음 가전은 무엇일까? 나 대신 불을 꺼주고, 알아서 건조기를 작동시켜줄 홈IoT? 세탁소 가는 시간을 줄여주면서 옷의 구김을 펴고 냄새를 없애주는 스타일러?



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스타일러” 1인 가구는 이모님으로 타인이 아닌 나의 식구, 나와 함께 사는 대상으로 반려 가전이라 불린다.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가끔씩 일을 도와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구처럼 여겨지겠지만, 1인 가구에게는 혼자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식구일지도 모른다. 특히 로봇청소기는 카메라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집의 현황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나 보다 집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집안일까지 해

동문(同門)의 소리 I



소령 이 강 준(3사 46기/보병)
육군본부 군수참모처

- 미 보병 초군반수료 (성적우수)
- 미 보병 고군반수료
- 미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국제정치학석사
- 전 3사관학교 교수부 영어학과조교수
- 전략지원체계업무 유공 표창(육군참모총장)
- 미래군사전력과정 유공 표창(육군 정책실장)
- 서울대 미래 군사전략과정 최우수논문수상

저는 여러분과 같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선배로, 현재 육군본부에서 복무하고 있다.

2011년에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 항상 능력을 인정받으며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

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장교들보다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며 군 생활을 이어왔다고 자부한다. 이 글을 통해 나의 이야기가 후배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생도 시절, 나는 영어학과를 전공하며 영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갔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중위 시절에는 미 보병 초군반에, 대위 시절에는 미 보병 고군반 군사 위탁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미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영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나의 군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전 세계의 장교들과 소통하며 넓은 시각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후배 여러분도 영어를 통해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당장 시작하라: 영어 공부는 절대 늦지 않다

내가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부사관으로 복무하시던 중, 상사 계급에 이르러 서툰이 넘는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다. 어릴 적부터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영어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배웠다.

현재 아버지는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한다. 여전히 매일 CNN 뉴스를 시청하며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나에게 영어를 배우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후배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영어 공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

작은 관심과 주변의 도움으로 열린 새로운 길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미 보병 초군반에 합격했던 계기는, 영어반 지원에 실패한 나를 위로해 주시던 연대 인사과장님의 추천 덕분이었다. 그 후 미 보병 고군반에 합격한 것도 초군반 귀국 후 지휘관님의 조언으로 빠르게 연계 과정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초군반 귀국 8개월 뒤 고군반을 준비했던 순간은 내 군 생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영어에 대한 작은 관심과 주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여러분도 영어 공부를 통해 군 생활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군인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군인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다. 아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영어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군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군 생활에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하고 싶다면 영어는 필수가 된다. 위탁교육, 파병, 군사외교 등의 기회를 얻으려면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는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한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한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군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II



소령(전) 조 장 인(3사 50기/보병)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정보참모처

- 1사단 수색대대 소대장
- 수도군단 140정보대대 지상감시소대장, 본부중대장
- 8군단정보처 전자전장교 특공대대 지역대장
- JSA경비대대 정보과장
- 첩보수집 및 감시자산 운용 유공 표창 (지작사령관)
- 정보작전대비태세 완비 유공 표창 (지작사령관)
- 8군단 TOP-Warrior 선발 상장(8군단장)
- 공동경비구역 경계작전 유공 표창 (UNC/CFC/USFK작참부장)
- 연합정보활동 기여 훈장 (미 군사정보협회 Van Deman)

수색·정보·특공대대, 군단 정보처 등 다양한 전방 야전부대 근무 경험과 JSA경비대대, 미2사단/연합사단, 호주 지참대('25년 예정) 등 다년간 연합작전 경력을 바탕으로 임관을 앞둔 후배들에게 10년간의 군 생활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

THE SECRET TO SUCCESS IS PAIN TOLERANCE

성공의 비결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다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3급, 토익 500점. 생도 3학년을 막 시작하던 시기 나의 성적이다. 안타깝게도 생도생활 2년 중 6개월은 티눈과 아킬레스건염으로 훈련과 아침 땀걸음을 열외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신경도 둔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다. 평범하다 못해 모든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씩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체력 특급과 토익 90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잘하는 건 별로 없었지만, 내가 별로라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는 꿈과 계획보다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더 유익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매일 달리기 30분,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일으키기 100개를 하고 있다. 영어 공부도 매일 하고 있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았다.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지만, 어쨌든 어제보다 나은 나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체력 특급과 토익 900점이 대단한 건 아니다. 특히 요즘엔 더 흔할 것이다.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노력해서 체력 특급이나 영어점수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10년 이상 꾸준히 해보라는 것이다. 꼭 영어가 아니라도 좋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 노력의 결과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독서, 운동 등 하루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처음부터 조급할 필요는 없다. 누구는 여단장 생도, 대대장 생도도 해보고, 누구는 졸업할 때 대통령상, 국방부장관상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시작한다. 부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동기들과 나를 비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10년, 20년 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초급장교 때 다른 동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잘됐다고 우쭐떨 필요도 없다. 인생도 그렇겠지만, 군 생활도 마찬가지다. 끝은 아무도 모른다. 임관 후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생도 생활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스트레스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군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여러분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The person you marry is the person you fight with. The house you buy is the house you repair. The dream job you take is the job you stress over.
(결혼할 사람은 함께 다툴 사람이기도 하고 내 집은 내가 보수하고 관리해야 할 곳이 된다. 꿈꾸던 직장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비전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 나도 연대 참모생도, 55 경비단(대통령 경호처), 안보사(現 방첩사), 인도파키스탄 PKO 개인파병, 연합사단(1회 비선), 육대 소령 지휘참모 과정(2형) 등 수도 없이 떨어져 봤다. 안타깝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우사인볼트는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되려면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압박감을 견뎌 내는 법, 경쟁하는 법, 부상을 이겨내는 법, 위기의 순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다 통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후배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군 생활의 모든 역경을 잘 버텨내서 육군을 이끌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응원한다.

It's not about how many times you get rejected or you fall down or you're beaten up, it's about how many times you stand up and you keep on going.
(중요한 것은 몇 번을 거절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받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에 헌신한 전역장병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지난 11월 21일 목요일, 임종득 국회의원과 안규백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에 헌신한 전역장병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경종 총동문회장과 소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관련 과

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고견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 전역장병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의 방향과 과제,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지원정책 발전방안, 전환기 청년 장병의 경력형성 취업지원 정책방안, 선진국의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정책, 직업군인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발전 등이 거론되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총동문회의 핵심 추진 과제인 후배들의 장기복무를 위한 군 인사법 개정에 관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었다. **3사 총동문회**



2024년 국방기술사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국방기술사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거행하였다. 국방기술사회는 기술사법 제2조에 의거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의 동문들이 2019년 10월 19일에 결성하였다. 현재는 총동문회의 산하에 조직되어 약 140여명의 동문들이 회원으로 활동중에 있다. 이러한, 국방기술사회는

평소 각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신기술 정보 등을 적극 교류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은 물론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정기총회, 2부 초빙 강연(신기술), 3부 만찬 등의 순으로 약 3시간 동안 성대히 진행되었다.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은 기술사로서도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총동문회의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국방기술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했다. 또한 그동안 동문의 위상을 높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찬조금으로 화답하였다. 3사 장교로 임관하여 군 복무간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고 지금은 국가기술 최고 자격인 기술사로서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국방기술사회의 모든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명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동문들이 기술사가 되어 제2의 삶을 멋지게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3사 총동문회**



총동문회 분과 위원장, 수석부회장 회의 및 역대회장 간담회 개최



지난 12월 3일 화요일, 총동문회에서는 2024년도 성과분석과 더불어 2025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총동문회의 각 분과별 위원장과 위원,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교 발전과 동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군 인사법 개정 및 생도 모집·홍보 등의 방안, 총동문회 관련 재단법인 설립 추진 방향, 10년 후 5성급 호텔형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전역하는 후배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도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은 각 과 제별로 복안을 설명하고 여러 고견들을 청취하면서

2025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추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총동문회 역대회장들을 모시고 2025년도 사업 추진 과제를 검토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12~13대 강성용(9기)·제14대 정인하(12기)·제16대 박주왕(19기) 역대 총동문회장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 간담회의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문회의 위상 제고, 재단법인 설립, 동문회관 건립, 전역 후배 사회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별 구체화 방안이나 대책 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역대회장들의 고견을 듣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러 고견들 중에 공통적으로 선·후배간 예우와



신뢰의 중요성, 총동문회관의 역사 보존 방향, 군 인사법 개정을 위한 적시적인 노력 경주, 총동문회의 각종 기금 형성을 위한 체계적 활동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고견들을 참고하여 총동문회 사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역대회장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3사 총동문회**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24. 11. 1~ 12. 31. 까지 기부현황입니다.

※기간 외 기부명단은 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 단체

15기 14중대 20만원

■ 학교발전 동참특별기부자('24. 11. 1~12. 31.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93), 두석주(육사#51) 2253, 류지민(육사#52) 225, 변용성(육사#53 2143), 김대영(육사#59 2210), 문은석(육사#59 2116), 김진찬(육사#61) 291, 홍희중(육사#61) 2139, 홍인재(육사#63 272), 문준호(육사#67) 280, 한덕수(학군#26 2149), 남기웅(학군#29 254), 구희곤(학군#32 4186), 송경재(학군#37) 2166, 이정환(학군#38 2119), 정우람(학군#46 2100), 홍현신(학군#48 2162), 유성국(학군#54 2117), 최재호(학사#29 2166), 임도현(학사#54 2145), 구주현(학사#55 2168), 임재훈(학사#55 2120), 성현애(학사#56 288), 심정현(학사#58 276), 최윤정(간사#38) 281, 송승현(원사) 2123, 강필승(군무원) 2130, 이수진(군무원) 2152, 최지욱(군무원) 2171, 정시연(군무원) 2163

■ 졸업생 가족('24. 11. 1~12. 31. 기부현황)

조경해(#45 황정태 모) 101010, 백인숙(#47 모) 277, 안순봉(#51 박상웅 모) 201350, 김현미(#52 오치원 모) 289, 이영미(#52 황성규 모) 6418, 임성영(#52 임강민 부) 2121, 정정화(#52 조강현 모) 2382, 박일심(#53 정필승 모) 2184, 서완수(#55 서지찬 부) 4162, 정원식(#55 정준영 부) 2155, 송학빈(#56 송용준 부) 2104, 정희숙(#56 배웅희 모) 20157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920, 김근택(#57 김광진 부) 4106, 김순달(#57 김준모 모) 2100, 박경석(#57 박찬환 부) 4114, 오유미(#57 김주현 모) 4110, 이동희(#57 박찬환 모) 6155, 김한영(#58 김범수 부) 10175, 최결순(#58 최승환 부) 2157, 현석호(#58 현민석 부) 645, 정신(#59 김중현 모) 2134, 조철만(#59 조현웅 부) 668, 유재웅(#59 유은찬 부) 5959, 현석호(#59 한정민 부) 645

■ 재학생 부모('24. 11. 1~12. 31. 기부현황)

▶ 4학년부모

김선혜 20121, 손학권 40440, 임성영 2121, 장은심 10210, 정미경 10115, 정지한 10100, 홍영옥 3123, 홍혜숙 2123

▶ 3학년부모

김혁 2312, 신지영 540, 최영순 2080, 양성경 55, 이해양 3030, 최영순 20100, 최정호 1010

■ 졸업생('24. 11. 1~12. 31. 기부현황)

▶ 1기 김용하 10275, 남훈호 101569, 이기원 1571, 임관택 2120, 최익환 2122

▶ 2기 윤경혁 10660

▶ 3기 김연석 100149, 장영집 10320

▶ 9기 권영호 10620, 김한기 61302, 윤지환 6261, 최병학 101435

▶ 13기 문성목 20640

▶ 14기 김길영 2138, 김중환 296, 안호 402408, 이순진 101060, 이용진 10570

▶ 15기 김성연 2566

▶ 16기 이영호 2167, 이종우 2200, 황병태 4353

▶ 18기 구연덕 2170, 금용백 6690, 이기환 265, 진기상 41156

▶ 19기 김익수 4263, 이종형 6374, 이창호 6696, 임영갑 10240, 홍성식 2235, 황영태 6230

▶ 20기 박권순 4228, 박동순 4149

▶ 21기 신철수 41346, 이정문 4290

▶ 22기 이진성 4293, 정경호 285, 조태환 4217, 천병규 4528

▶ 23기 김태일 2270, 신영찬 2111, 오승욱 4344, 정철재 4261, 최승환 247, 허강수 4359

▶ 24기 광종만 4132, 권오봉 2254, 김도협 2272, 김성래 4112, 남용구 5329, 모경원 2267, 박세철 2110, 박찬웅 271, 방성대 6259, 이문희 2132, 정정현 2231, 홍성희 4124

▶ 25기 김달호 29, 김협동 2111, 문봉성 4265, 장무수 289, 전희준 2345, 홍은표 2239

▶ 26기 고창준 2508, 신태영 2133, 양성안 236, 유근환 175, 이덕우 2167, 이용환 1075, 이원주 6232, 이태인 4142, 임우영 2284

▶ 27기 김관수 6199, 김덕중 2108, 김용범 488, 김지덕 262, 김호복 6410, 나현민 4240, 석수열 285, 원희은 2348, 이희순 2280, 정월균 284

▶ 28기 권승영 145, 권양철 4159, 박용섭 4253, 유정일 275, 윤석찬 2181

▶ 29기 김강식 2285, 김태영 4110, 박성훈 2193, 박태웅 2172, 이상일 2228, 정해균 214, 최인섭 2152, 현대식 2190, 황재식 222

▶ 30기 김광석 482, 김홍빈 453, 남진우 295, 이용학 216, 이진 1188, 임상달 1158, 홍성범 277, 함민호 2140

▶ 31기 권동호 4140, 김민식 4170, 김영태 2221, 김태희 249, 김희범 2266, 염항수 2176, 이재춘 2250, 이훈복 288, 최대집 286

▶ 32기 권관덕 4394, 김화용 2153, 사인우 2175, 송진수 5135,

정영규 429, 주정용 223

▶ 33기 고은중 22, 권해욱 8104, 권오진 28, 김남식 2203, 김성근 4224, 김현규 4472, 남석진 2177, 신성균 220, 안영일 2274, 안준영 6239, 이정표 3173, 정용호 218, 조용화 257, 조재봉 2150, 홍종원 267

▶ 34기 김민오 464, 김운성 285, 김홍식 6555, 류영택 4133, 우진호 221, 이무이 2444, 이재원 112, 임창훈 2120, 정연민 220, 정웅민 2254, 정창근 2146, 정준환 296, 조수창 2221, 홍영기 265

▶ 35기 김경철 249, 김수열 2109, 박병준 6428, 박상우 1105, 박상천 2675, 박시근 1220, 송명성 4140, 유희승 434, 이문희 2189, 이용우 412, 은명훈 444, 임창규 2147, 장춘삼 2184, 전성광 278, 정병삼 2191, 정영석 6167, 정호준 4174, 하중수 265, 한중훈 4447

▶ 36기 김도희 4134, 김동혁 2129, 김명규 169, 김현 2168, 박광석 218, 박정훈 211, 양현승 2254, 이광희 2190, 이현중 3030, 임종수 2110, 장세호 2241, 정우철 2176, 조동근 2257, 진연수 2201, 홍석조 169

▶ 37기 강성봉 2207, 김양훈 6357, 김충기 4227, 김흥년 2272, 노진철 2186, 문장권 260, 서영진 519, 송석봉 4231, 송용섭 4369, 엄태환 230, 옥원호 2172, 이관모 2178, 이원형 4355, 임원철 2193, 정우진 2110, 정태욱 4194, 최정호 178, 함성규 2143

▶ 38기 강민 251, 김대현 254, 남상훈 1515, 모을하 2271, 문정민 2156, 문현성 2269, 서성걸 2113, 오영필 30156, 이경식 2217, 위재익 4153, 정한욱 2248, 함기훈 2124

▶ 39기 권웅 496, 김의진 2165, 김인경 2123, 김지훈 4165, 박철균 2159, 송창현 4191, 심용은 2128, 양은차 2106, 이대화 2251, 이용렬 2147, 장동준 4129, 정대겸 266, 최현철 2312

▶ 40기 구자운 4250, 김백린 6262, 김영우 6364, 김우형 486, 김중욱 279, 김형수 2215, 박상규 292, 박진하 2131, 송석준 2176, 유형선 2122, 이종섭 26, 이호연 10888, 이훈석 298, 조현 10281, 주영우 247, 최창국 2134, 하성남 571

▶ 41기 권영철 2105, 김석진 10438, 박한지 2225, 방현욱 2115, 손종득 2133, 임성은 4197, 전종상 10397, 정기재 2225, 최민규 4189, 홍학현 6100

▶ 42기 강구한 256, 강재석 2143, 강정희 2192, 공광석 298, 김동우 2166, 김동진 2135, 김용민 2102, 박용준 6148, 박호찬 2192, 손병현 2210, 윤광일 248, 윤희철 2186, 이기욱 2133, 이성호 267, 이승은 2192, 이용학 2195, 이호선 476, 정만기 2185

▶ 43기 김민수 264, 김인중 2276, 노창래 283, 박희영 299, 배동직 2249, 백두산 4314, 엄태섭 284, 이남익 2103,

이도훈 2167, 이용희 4301, 이효선 2122, 허광석 2131, 김대은 2143, 김승돈 474, 권용혁 4108, 서동준 2178, 안민환 256, 엄태천 2131, 오승우 6154, 이민재 2170, 이영민 2179, 이희성 4215, 최재균 2110

▶ 45기 권기호 2173, 김동호 2181, 김성수 4185, 박영일 2176, 박지훈 2124, 신유철 2166, 이인권 2121, 이진희 4206, 정재현 2177, 정진우 2178, 채희용 2156, 최충수 2179

▶ 46기 강승웅 4334, 권지민 252, 김대영 279, 김명철 2165, 김정렬 2165, 김정호 2282, 김정훈 441, 김진용 2199, 박수만 271, 백인정 2165, 송원상 4278, 오기리 2163, 이상운 2165, 이신화 6447, 이수원 2168, 이진철 2156, 정종택 6497, 조광연 2103, 조수빈 2127, 차승우 2127, 표상열 2165, 한영인 2165, 홍한표 2156

▶ 47기~59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사관학교 발전과 우수생도양성에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육군3사관학교 발전재단
이사장 이창효 드림

2025년도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한 목적사업 계획

구분	사업명	지원액(원)	비고
장학/교육증진 (1억 9천만원)	생도해외견학	160,000,000	4학년, 외국 군사기지/사관학교
	동기유발 장학금	15,000,000	성적우수, 목표달성
	학과현장학습지원	15,000,000	3,4학년 학과별
입시홍보 (1억 447만원)	고교/대학방문홍보	35,000,000	권역별 출장홍보
	SNS입시광고	40,000,000	포털, 유튜브광고
	예비생도교육	14,400,000	식비, 교통비, 기념품
	학교달력제작	4,500,000	홍보용달력 후가공
	홍보콘텐츠개발장비	7,950,000	콘텐츠촬영장비
	권역별출장면접지원	7,126,000	면접관파견비(25년 종결)
정책/제도발전 (4,300만원)	생도문화교류활동	30,000,000	사관학교 및 민간대학교류
	학교지문위원운영	10,000,000	교육/정책지문(8명)
	학교발전유공장려	3,000,000	명예고양, 홍보유공
능력개발 (3,100만원)	교수연수지원	8,000,000	자비해외연수
	훈육관/교관워크숍	3,000,000	교육자 능력향상
	생도교육보조재지원	10,000,000	자비구매 필수품
	생도역량강화	10,000,000	학술, 체력경연 참가
총 사업비		372,976,000	

발전기금
참여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